

1. what을 이용한 강조 구문

- 1)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다. 따라서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 2) the thing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해석은 ~하는 것/바/기 로 한다.
- 3)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의 일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What they started was a whole new business model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sharing economy.

✓ 그들이 시작했던 것이라는 뜻으로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고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다.

<해석> 그들이 시작한 것은 공유 경제의 형태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is a more sustainable way of utilizing limited resource.

<해석>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바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2. 가정법 과거형

- 1)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 혹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을 나타낸다.
- 2)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을 사용한다.
- 3) If를 사용하지 않고도 without이나 But for을 사용하여 가정법 구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때 해석은 ~가 없다면 으로 한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But for the sharing service, one more car **would be** made only to stay still in her garage most of the time.

✓ ~이 없다면 이라는 뜻으로 But for이 쓰였고 가정법 과거형이므로 주절에는 조동사과거형+동사원형이 쓰였다.

<해석> 만약 공유 서비스가 없다면, 차 한 대가 제작되지만 결국 그녀의 차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을 것이다.

Without the service, Hyeonwoo **would have had** no choice but to buy the expensive tool.

✓ ~이 없었다면 이라는 뜻으로 without이 쓰였고 과거 사건의 반대되는 일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로 주절에는 조동사과거형+have+p.p이 쓰였다.

<해석> 만약 그 서비스가 없었다면, 현우는 값비싼 연장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 Here you can read about them, along with appropriate case stories 1)casting light on 2)what the sharing economy is and how it works.

1) 현재분사

앞에 있는 명사형인 case storie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수식하는 명사형과 능동의 관계이면 현재분사형인 ing를 수동의 관계이면 과거분사형인 PP형을 써야 한다.

2) 간접의문문

문장안에서 사용되는 의문문의 형태이다.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가 되는 것이 일반 의문문과의 차이점이다.

〈해석〉 여기서는 핵심 개념에 적절한 일화를 곁들여서 공유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을 읽게 된다.

★ Thanks to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now there is 1)much more data about people and things 2), which makes sharing cheaper and easier than ever.

1) 비교급의 강조 표현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여서 훨씬 더욱 ~하다 라는 뜻이다.

much, still, far, a lot 등을 사용한다. very는 사용할 수가 없음에 유의한다.

2)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앞 절의 내용을 부연설명 함과 더불어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계속적용법'으로 쓰였다고 한다.

따라서 의미상 and it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단,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

〈해석〉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로 인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저렴하고 쉬워지고 있다.

★ For example, without the Internet, how can you know 1)that somebody has a spare room to your taste in a simple family house?

1) 접속사 that

know에 대한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that으로 쓰였다.

이때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해석〉 예를 들어, 인터넷이 없다면 누군가 작은 가족의 주택에 당신의 취향에 꼭 맞는 여분의 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미리보는 빈출문장

★ 1)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2) is a more sustainable way of utilizing limited resources.

1)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2) 동사의 수일치

what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동사형은 단수형인 is를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동사형은 단수형을 써야 한다.

〈해석〉 공유경제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더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For instance, art lovers used to find satisfaction in collecting artworks.

1) used to 관련 구문들

used to+동사원형은 과거에 ~을 하고는 했다 라는 뜻이다.
used to+ing는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to는 전치사이다.
be used to: ~하는데 사용되어 지다 라는 뜻으로 수동형으로 쓰인 것이다.

〈해석〉 예를 들어 미술 애호가들은 작품을 수집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는 했다.

★ Now she enjoys telling her guests stories about the neighborhood 1) and preparing them delicious local breakfasts, 2) trying to 3) make them feel at home.

1) 병렬구조

enjoy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였으므로 등위접속사 and가 있으므로 앞에 있는 telling과 병렬구조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telling과 같은 형태인 ing형으로 preparing을 써야 한다.

2) 분사구문

동시상황을 나타내는데 쓰는 것이 분사구문이다. ~하면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
주어와 접속사는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형이면 현재분사형으로,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형으로 시작한다.

3) 사역동사+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사역동사+목적어+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이런 동사로는 make, have, let이 있다.
준사역동사인 get은 get+목적어+to부정사를 쓴다.

〈해석〉 이제 그녀는 손님들에게 이웃의 이야기를 해주고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즐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3조에 의한 표시

- 1) 제작연월일 : 2019년 04월 12일
-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